

인식과 관심도가 크게 달라져,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정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의 원인을 조기발견하여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강진단의 결과가 의외로 발병율의 증가와 각종질환의 발견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대상 및 방법 :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1991년 1월~1993년 12월말까지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검사자 43,648명을 대상으로 X-선 흉부촬영에서 사진상의 폐암(폐암의심), 폐결핵, 기타질환이 나타난 유소견자를 연령별, 질병별로 분류하였다.

결과 :

검사자 43,648명(남 : 27,068, 여 : 16,580) 중 유소견자 509명(평균 1.16 %) 즉, 남자는 1.35 %, 여자가 0.86 %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1.4 %, 30대 1.14 %, 40대 1.13 %, 50대 1.07 %, 60대 1.51 %, 70대 1.48 %으로 나타났다. 폐암 의심자는 18명이 나타났으며 활동성 폐결핵은 0.61 % 매년 감소 추세인데 비해 특히, 20대에서는 0.93 % 매우 높게 나왔으며 폐결핵에서 남자 0.74 %, 여자 0.41 %로 남자가 배에 가까운 발병율을 보이고 있다.

결론 :

본 통계는 계층간, 지역간을 배제하여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며 결론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의 발병율과 특히, 20대에서 활동성 폐결핵의 발생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을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종합건강진단의 활성화와 중요성이 한층 입증되었다.

<14>

**한국내 방사선 검사의 28년간
변화 동향 분석**

전성준* · 김건중
국립경찰병원 방사선과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목적 :

앞으로 방사선 검사의 방향 등을 예측해 보고, 신설병원 방사선과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동향 분석을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종합병원 방사선과 통계를 대상으로 하였고, 각각의 검사를 A. B. C. D 그룹으로 분류하고 통계처리 하였으며 방사선과 외적인 인자의 영향도 파악하였다.

결과 :

연도별 검사의 증가율은 기복이 심하였고(-, 7%~47%) 15% 이상의 증가는 약 3~4년 주기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총검사의 변화양상은 A, B 그룹이 C, D 그룹의 출현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결론 :

- 1) 약 3~4년 주기로 15%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 2) 개원 후 방사선과 검사가 안정세를 찾기까지는 3~4년이 소요되고 있었다.
- 3) 방사선과 검사의 증가 주도 그룹은 A 그룹으로 나타났다.
- 4) 80년대 후반기까지 A그룹의 점유율은 80% 이상이었으나 1987년을 기준으로 80% 이하로 감소하여 점진적 하향이 예상되고 유망 검사는 예외적으로 상향세로 보였다.

<15>

**재촬영 필름 토론회 실시
전후에 발생한 재촬영 필름
발생빈도의 차이**

이유종* · 김보근 · 이상일 · 전성백
이우택 · 박상귀 · 박기우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목적 :

1993년 5월 본원 신축 개원 후에 발생한 모든 재촬영 필름을 대상으로 하고, 재촬영 필름 원인 분석 토론회를 실시하므로써 재촬영 건수

가 감소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3년 6월부터 1994년 8월 사이에 발생한 각각의 요일별, 주·야간별, 촬영실별 필름 소모량과 재촬영 필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촬영 필름 토론회를 실시하기 전인 1993년 6월부터 1994년 4월까지를 1군으로 하고 실시 후인 1994년 5월부터 8월까지를 2군으로 나누어 요일, 주·야간, 촬영실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필름 소모량에 대한 재촬영 필름의 비(%)를 구하였다.

요일별 분석에서는 1군 2.8%, 2군 1.3%로 53.6%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촬영실별 분석에서는 1군 1.75, 2군 0.7%로 58.8%의 감소, 주간분석에서는 1군 2.8%, 2군 1.3%로 53.6%의 감소, 야간은 1군 2.2%, 2군 1.0%로 54.5%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2군이 1군에서보다 55.1%의 감소를 나타냈다.

결론 :

요일, 촬영실, 주·야간별 모두 재촬영 필름 토론회를 실시한 후의 재촬영 건수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매일 재촬영 필름 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16>

이온성과 비이온성 조영제를 이용한 CT와 IVP검사의 부작용 사례분석

김영성* · 여영복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목적 :

CT 검사에서 이온성 조영제와 비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하고, IVP 검사에서는 비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하여 각종 부작용의 사례를 분석, 평가하므로써 임상에서 보다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검사를 시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1년 3월부터 1994년 7월까지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CT 검사를 시행한 환자(이온성 조영제 400예, 비이온성 조영제 771예)와 IVP 검사를 시행한 환자(비이온성 조영제 3,984예)를 조영제 주사 후 부작용의 발생 시점, 성별, 연령별, 증상별로 부작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

1) 이온성과 비이온성 조영제의 부작용 비교에서 이온성 8.0%보다 비이온성은 평균 3.5%로 훨씬 적게 나타났다.

2) 정맥주사에 의한 조영제 부작용 발생 시점은 주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56%, 주입 후 5분까지 25%, 5분 이후에서 19%로 나타났다.

3) 성별에 의한 부작용 발생 빈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10~25% 높게 나타났다.

4) 연령에 따른 부작용 발생 분포는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5) 증상별 부작용은 오심, 구토, 두드러기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

이온성 조영제 사용시 보다 비이온성 조영제 사용시 부작용이 월등히 감소현상을 보였으므로 비용면에서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비이온성 조영제 사용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검사전 시행하는 eye ball test 등은 환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뿐, 실제적으로 무의미함을 보였으므로 이보다는 주사후 5분 이상을 관찰하여 부작용발생시 즉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17>

배변조영술의 기술적방법 고찰 및 남녀 정상인의 정상치 분석

유병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진단방사선과